

영아교사의 민감성, 효능감, 영아와의 상호작용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지연** 황혜정***

Effects of the Infant Teachers' Susceptibility, Efficacy, and Interactions
between Teachers and Infants
on the Social · Emotional Development of Infants

You, Ji Yeon Hwang, Hye Jung

본 연구에서는 영아교사의 민감성, 효능감, 영아와의 상호작용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 어린이집 교사 169명과 이들이 담임하고 있는 영아 중 한 명씩을 선정하게 하여 총 169명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교사용 척도를 통해 교사의 민감성, 효능감, 상호작용과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였다. 영아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교사의 민감성, 효능감, 영아-교사 상호작용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인 간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 그리고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민감성, 효능감, 교사-영아 상호작용 및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은 교사의 배경변인 중 영아교사의 경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 교사경력, 영아교사경력, 연령, 어린이집 유형, 학력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영아교사의 민감성, 효능감, 상호작용 모두가 영아의 사회·정서발달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영아교사의 민감성, 효능감, 상호작용이 동시에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영아교사의 민감성과 상호작용이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인이었다. 이들 변인은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을 53%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영아교사가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을 높이기 위해 개개인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민감성 수준을 높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려고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 주제어 : 민감성, 효능감, 상호작용, 사회·정서발달

* 본 논문은 2014년도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논문을 확장한 것임.
본 연구는 2015학년도 경기대학교 대학원 연구원장학생 장학금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제 1저자 경기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E-mail : u-jiyeon317 @hanmail.net)

*** 교신저자 경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E-mail : jinhwang@kgu.ac.kr)

I. 서론

사회가 점차 산업화되면서 가족의 구조와 양육환경에도 변화가 생겼다. 대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전통적인 가족구조에서 핵가족, 한부모가족 등으로 가족 구성원의 수가 감소하였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어머니의 일차적인 책임이었던 가사는 가족 구성원들이 분담하게 되었고, 대가족 내에서 여러 구성원에 의해 이루어졌던 자녀 양육은 사회가 일부 그 책임을 나눠지게 되었다. 즉, 영유아의 보육을 전문적인 교육이나 시설을 갖춘 보육기관에서 책임지게 되고 영유아가 보육기관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이에 따라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관심은 어린이집의 취원 연령이 낮아지면서 영아기까지 확산되었다(양옥승, 이정란, 2003).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은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행동의 시작이 되며, 성인이 되어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구성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영아기는 사회·정서발달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면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이를 보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부모의 영향에 관한 연구(김민희, 2010; 김선화, 2011; 김유미, 2010; 장사남, 2012; 주정혜, 2012), 영아의 기질, 개별적 특성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이하나, 2012; 이화용, 2012; 정점옥, 2009)가 있으며, 영아와 교사간의 사회·정서 관계(김인숙, 2010; 안문실, 2013; 연보라, 2014; 이윤정, 2013; 조혜연, 2014; 최연희, 2014), 교사의 애착관계(김정미, 2013; 차승환, 2012) 등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최근에는 교사 변인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영아의 취원율이 증가하면서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교사의 영향력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듯하다. 교사는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Howes, Matheson과 Hamilton(1994)은 보육의 질에 대한 구성요인을 구조적 측면과 과정적 측면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그 중 물리적 환경이나 구조적 측면보다 과정적 측면을 더욱 중요하게 보았다. 영아와 영아교사와의 관계가 강조되는 것은 교사의 질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교사의 역할이 영아에게 중요하게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백경순, 2011; Downer, Sabol, & Hamre, 2010).

교사의 질적 수준을 거론할 때 교사의 교육활동을 이끄는 여러 요인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민광미, 2014), 이 중 영아교사와 영아와의 정서 교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사는 영아의 요구에 대해 반응과 해석을 정확히 해야 한다. 즉, 영아교사는 영아의 발달 특성과 양육에 필요한 지식을 근거로 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지성애, 2007). 영아교사의 민감성은 교사가 영아의 정서적·신체적 표현에 대해 즉각적으로 민감하며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영아 간에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고, 영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최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영아교사의 민감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교사의 반응이 영아의 모든 발달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영아교사의 민감성이 영아의 사회, 정서, 인지, 언어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미영, 정옥분 2014; 김의향, 김명순, 2006; 박성연, 서소정, Bornstein, 2005). 즉, 교사의 민감성은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영아들은 자신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배려적인 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발달과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배진희, 2013). 이에 영아의 건강한 사회·정서발달을 위해 교사의 민감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교사는 자신이 어떤 일을 수행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신념이 필요하다. 자기 자신, 또는 자신의 일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그 일에 대한 애정과 헌신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교사에게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교사의 부정적인 지각이나 사기, 의욕 등의 저하는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보육의 질에 대한 문제해결과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질 향상의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각, 사기, 의욕 등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요인이 바로 교사효능감이다. 교사효능감은 1970년대 Bandura의 ‘사회인지이론’을 근거한 자기효능감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Hoy & Miskel, 2005). 이는 교사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한 믿음이나 학습자의 성취, 행동 또는 훈육에 대한 확신감 등의 개념을 포함하며(김아영, 차정은, 2003; 문태형, 2014),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 학습자일지라도 교사 자신의 교육적인 행위가 학습자의 학습 성취와 행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교사의 개인적인 판단을 의미한다(류윤석, 2008). 최근 영유아 발달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사 효능감은 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김명선, 2014). 교사의 효능감은 영유아의 언어, 인지, 정서,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하였으며(이경하, 서소정, 2012; 이정애, 2013; 홍정아, 2010), 이는 교사의 신념, 가치관이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에 근거하여 교사효능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강이슬, 김민경, 2011).

한편, 영아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과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하여 삶의 기초를 형성한다. 즉,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를 조절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행동하는 방식을 배우게 된다. 초기에 맺는 사회적 관계와 정서조절 방법은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행동의 근간이 되므로 영유아가의 사회·정서 발달은 이 시기의 주요한 발달과업이 된다(라양근, 2006). 선행연구에 의하면, Howes(1997)는 영아-교사 상호작용은 영아의 정서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 교사가 영아를 존중하는 태도로 반응적이고 민주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영아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더 잘 해결한다고 보고하였다. Holloway와 Reichhart-Erickson(1998)은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따라 영아의 자유놀이 행동 및 사회적 문제해결기술을 살펴본 결과, 영아에게 따뜻하고 반응적이며 존중해 주고 격려하며 독립심을 장려하는 교사가 영아들의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Phillips, McCartney와 Scarr(1987)는 질 좋은 보육을 제공받는 영아들은 특히 교사와 언어적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더 사려 깊고 사교적이었으며 감정이입이 잘 되고 정서적으로 잘 적응하여 또래와의 관계에서 정직하고 적극적인 행동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장종윤(2010)의 연구에서도 영아-교사간의 상호작용의 질이 우수하면 영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영아-교사의 상호작용 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교사의 민감하고 반응적인 상호작용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의 영아-교사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들은 영아의 발달과 상호작용 유형을 세분화하여 영아-교사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있다(하지영, 서소정, 2011). 이에 교사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영어교사와 영아의 관계를 살펴본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영아의 일반적

배경이 반영된 연구 즉, 영아의 성별, 연령 등이 고려된 연구(고윤희, 2014; 김현정, 2014; 안문실, 2013),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관련 변인 연구(박유미, 최인숙, 김은아, 2010; 연보라, 2014; 왕유정, 2013; 이정애, 2013; 이화용, 2012; 채승희, 2013)가 주를 이루고 있다. 더불어 영아교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교사관련 변인 연구(김은순, 2011; 박선화, 2013; 배진희, 2013; 이기숙, 박경자, 김영옥, 2007; 이선희, 2010; 이윤정, 2013; 홍은숙, 2013)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 변인을 종합적으로 밝히는 연구는 드물다. 이는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이 보육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고 있는 시점에서,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교사의 여러 가지 배경변인 및 교사관련 변인의 영향을 다양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보육현장에서 교사가 영아를 이해하고 지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영아와 영아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의 교사경력, 영아교사경력, 연령, 학력, 어린이집 유형 등의 배경변인에 따라 교사의 민감성, 효능감, 상호작용 및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본다. 그리고 교사가 애착신호에 대해 정확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인 민감성과 교수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효능감, 그리고 영아-교사의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하여 이들 변인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을 증진시키고 교사가 영아를 보육하는 데 있어 보다 효과적이며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영아교사의 배경변인(교사경력, 영아교사경력, 교사연령, 교사학력,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민감성, 효능감, 영아-교사 상호작용 및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는 차이가 있는가?
2. 영아교사의 민감성, 효능감, 영아-교사 상호작용과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3. 영아교사의 민감성, 효능감, 영아-교사 상호작용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 교사 169명과 이들이 담임하고 있는 영아 169명이었다. 영아의 평균 월령은 30.7개월($SD=10.5$)이었다. 연구대상 교사와 영아의 기본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기본 정보

(N=169)

변인	구분	f (%)	변인	구분	f (%)
영아	남아	68 (40.2)	영아	18 ~ 24개월	42 (24.8)
성별	여아	101 (59.8)	연령	25 ~ 30개월	61 (36.1)
				31 ~ 36개월	66 (39.1)
교사 경력	1년 미만	17 (10.1)	영아	1년 미만	39 (23.1)
	1년 이상 ~ 3년 미만	54 (32.0)	교사	1년 이상 ~ 3년 미만	77 (45.6)
	3년 이상 ~ 5년 미만	60 (35.5)	경력	3년 이상 ~ 5년 미만	34 (20.1)
	5년 이상 ~ 7년 미만	15 (18.9)		5년 이상 ~ 7년 미만	12 (7.1)
	7년 이상	23 (13.6)		7년 이상	7 (4.1)
교사 연령	20세 ~ 29세	45 (26.6)	교 사 학 력	보육교사교육원졸업	43 (25.4)
	30세 ~ 39세	79 (46.7)		전문대졸업	91 (53.8)
	40세 이상	45 (26.6)		4년대졸업	32 (18.9)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어린이집	55 (32.6)		대학원 졸업이상	3 (1.8)
	민간어린이집	80 (47.3)			
	가정어린이집	34 (20.1)			
전체		169 (100.0)	전체		169 (100.0)

2. 연구도구

1) 영아교사의 민감성

영아교사의 민감성은 Gerber(2003)의 교사 민감성(teacher's sensitivity) 척도를 번안하고, 이정숙(2003)의 교사-유아 민감적 상호작용 척도를 영아반 교사의 상호작용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김현지(2008)의 도구를 요인분석하여 3개 요인, 2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정서적인 면이 결합한 작은 자극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인식하는 감성지각 민감성(9문항), 영아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긍정적 민감성(8문항), 영아에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부정적 민감성(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부정적 민감성은 총 점수 산출시 하위영역의 점수를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교사가 응답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교사의 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8이며, 하위요인별로는 감성지각 민감성 .84, 긍정적 민감성 .83, 부정적 민감성 .85로 나타났다.

2) 영아교사의 효능감

영아교사의 효능감은 Enochs와 Riggs(1990)에 의해 개발된 과학교수효능감 측정도구 STERBI(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를 유치원 교사의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분려(1998)가 수정한 도구를 영아교사의 효능감으로 수정한 후 요인분석하여 2개 요인, 14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효능감에 대한 연구분야에서는 특정 영역 대신 연구자가 알아보고자 하는 영역을 대치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Teti & Gelfand, 1991) 본 연구에서는 문항의 내용 중 '과학 활동'이라는 용어를 '어떤 활동'으로 수정하였다. 교사가 영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높은 신념의 일반적 교사효능감(8문항), 교사로서 자신이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념의 개인적 교사효능감(6문항)의 2개 요인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교사가 응답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교사의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4이며, 하위요인별로는 일반적 교수효능감 .66, 개인적 교수효능감 .73으로 나타났다.

3) 영아-교사 상호작용

영아-교사의 상호작용은 Abbott-Shim과 Sibley(1987)에 의해 개발된 Assessment Profile for Early Childhood Programs(APECP)을 기초로 강숙현(1994)이 참고하여 만든 '한국판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척도' 중 영아기 프로그램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교사-영아 간 상호작용부분을 이현숙(2008)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시 요인분석하여 3개 요인, 17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적극적인 활동참여(6문항), 긍정적인 상호작용(6문항), 반응적인 교사(5문항)의 3개 요인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교사가 응답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교사의 상호작용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3이며, 하위요인별로는 적극적인 활동참여 .81, 긍정적인 상호작용 .79, 반응적인 교사 .70으로 나타났다.

4)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은 Bayley III판(2006) 중 기능적 사회·정서척도를 사용하여 김호인(2010)이 수정한 영아 사회·정서발달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개 요인, 3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이를 다시 요인분석하여 4개 요인, 26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영아의 기쁨, 분노, 공포의 기본정서, 이차정서, 긍정적인 신체적 접촉을 말하는 지각행동, 애착행동, 사회적 행동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기본정서 및 사회적 행동(9문항), 영아가 자신을 나타내고 타인과 자신을 구분 짓는 능력, 행동, 태도 등이 포함하고 있는 자아개념(6문항), 영아가 자신이 스스로 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지과정을 조절하고 정서조절에 관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자기조절(5문항), 영아의 교사, 또래와의 상호작용 등의 행동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6문항)의 4개 요인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교사가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6이며, 하위요인별로는 기본정서 및 사회적 행동 .94, 자아개념 .84, 자기조절 .83, 사회적 관계 .88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수행하기 전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 교사 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측정도구 사용이나 연구의 진행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어린이집 55기관을 임의표집하여 질문지 200부를 영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 직접 방문을 통해 배부, 회수하였다. 이들에게 담당하고 있는 영아 중 가나다 이름순으로 가장 먼저인 영아 한 명을 선정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배부한 200부의 검사지 중 175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87.5%),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질문지 6부를 제외하고 169부가 최종적으로 분석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자료분석을 위해 Window용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영아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교사의 민감성, 효능감, 영아-교사 상호작용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영아교사 변인 중 민감성, 효능감, 상호작용과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아교사의 민감성, 효능감, 상호작용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후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교사 배경변인에 따른 민감성, 효능감, 영아와의 상호작용과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차이

교사 배경변인(교사경력, 영아교사경력, 교사연령, 어린이집유형, 교사학력)에 따른 영아교사의 민감성, 효능감, 영아-교사 상호작용과 영아 사회·정서발달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교사 배경변인에 따른 민감성, 효능감, 영아-교사 상호작용 및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사의 민감성은 교사경력($F=8.62, p<.001$), 영아교사의 경력($F=3.16, p<.05$), 어린이집 유형($F=3.72,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났다. 이를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사의 경력에서는 1년~3년 미만($M=3.52, SD=.14$)의 경력을 가진 교사가 1년 미만($M=3.22, SD=.24$)의 경력교사, 3년~5년 미만($M=3.23, SD=.26$), 5년~7년 미만($M=3.26, SD=.18$), 7년 이상($M=3.10, SD=.16$)의 경력을 가진 교사보다 민감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교사의 경력에서는 3년~5년 미만($M=3.30, SD=.28$)의 영아교사경력을 가진 교사가 7년 이상의 영아교사경력($M=3.01, SD=.09$)을 가진 교사보다 민감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에서는 가정어린이집($M=3.30, SD=.27$)교사가 민간어린이집($M=3.26, SD=.26$)교사보다 민감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교사 배경변인에 따른 민감성, 효능감, 영아와의 상호작용과 영아 사회정서발달 차이검증 (N=169)

범주	내용	N	교사 민감성		교사 효능감		영아-교사 상호작용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	
			M(SD)	F	M(SD)	F	M(SD)	F	M(SD)	F
교사 경력	1년 미만	17	3.22(.24) _a		2.91(.06) _b		3.75(.08)		3.71(.87) _{ab}	
	1 ~ 3미만	54	3.52(.14) _b		2.91(.12) _b		3.88(.47)		4.33(.57) _b	
	3 ~ 5미만	60	3.23(.26) _a	8.62 ^{***}	2.96(.15) _b	8.23 ^{***}	3.85(.30)	2.28	3.83(.68) _b	5.94 ^{***}
	5 ~ 7미만	15	3.26(.18) _a		2.85(.15) _{ab}		3.71(.36)		3.65(.98) _{ab}	
	7년 이상	23	3.10(.16) _a		2.78(.17) _a		3.66(.29)		3.06(.99) _a	
	전체	169	3.24(.25)		2.91(.15)		3.81(.36)		3.72(.90)	
영아 교사 경력	1년 미만	39	3.28(.22) _{ab}		2.92(.09) _b		3.83(.34) _b		3.84(.84) _b	
	1 ~ 3미만	77	3.24(.25) _{ab}		2.94(.14) _b		3.89(.39) _b		3.77(.81) _b	
	3 ~ 5미만	34	3.30(.28) _b		2.91(.16) _b		3.72(.30) _{ab}		3.91(.73) _b	
	5 ~ 7미만	12	3.11(.15) _{ab}	3.16 [*]	2.76(.15) _a	8.05 ^{***}	3.71(.30) _{ab}	3.54 ^{**}	3.28(.99) _{ab}	6.91 ^{***}
	7년 이상	7	3.01(.09) _a		2.71(.13) _a		3.45(.16) _a		2.24(.97) _a	
	전체	169	3.24(.25)		2.91(.15)		3.81(.36)		3.72(.90)	
교사 연령	20세~29세	45	3.23(.22)		2.86(.16) _a		3.79(.35)		3.63(.97)	
	30세~39세	79	3.27(.25)	1.02	2.94(.15) _b	4.83 ^{**}	3.87(.37)	2.29	3.79(.80)	.50
	40세 이상	45	3.20(.27)		2.89(.12) _{ab}		3.73(.33)		3.68(.99)	
	전체	169	3.24(.24)		2.91(.14)		3.81(.36)		3.72(.90)	
어린이 집 유형	국,공립	55	3.28(.26) _{ab}		2.92(.11) _{ab}		3.91(.37) _b		3.94(.70)	
	민간	80	3.19(.21) _a	3.72 [*]	2.88(.17) _a	4.18 [*]	3.71(.29) _a	6.03 ^{**}	3.58(.99)	2.69
	가정	34	3.30(.27) _b		2.96(.13) _b		3.89(.44) _{ab}		3.68(.94)	
	전체	169	3.24(.25)		2.91(.15)		3.81(.36)		3.72(.92)	
교사 학력	보육교사 교육원	43	3.21(.23)		2.90(.16)		3.94(.42) _b		3.61(.91)	
	전문대	91	3.26(.25)		2.90(.15)		3.80(.30) _{ab}		3.76(.91)	
	4년대	32	3.26(.26)	1.00	2.92(.14)	.18	3.73(.38) _{ab}	3.54 [*]	3.70(.90)	.54
	대학원이상	3	3.05(.20)		2.94(.17)		3.45(.39) _a		4.17(.45)	
	전체	169	3.24(.25)		2.91(.15)		3.81(.35)		3.72(.90)	

주. a, b는 Scheffé 검증결과, $p < .05$ 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 $p < .05$, ** $p < .01$

교사의 효능감에서는 교사경력($F=8.23, p<.001$), 영아교사경력($F=8.05, p<.001$), 교사연령($F=4.83, p<.01$), 어린이집유형($F=4.18,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났다. 이를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사경력에서는 1년 미만($M=2.91, SD=.09$)의 경력을 가진 교사와 1년~3년 미만($M=2.91, SD=.12$)경력교사, 3년~5년 미만($M=2.96, SD=.15$)의 경력을 가진 교사가 7년 이상($M=2.78, SD=.17$)의 경력을 가진 교사보다 높은 효능감이 나타났다. 영아교사의 경력에서는 1년 미만($M=2.92, SD=.09$)의 영아경력교사와 1년~3년 미만($M=2.94, SD=.14$)의 영아경력교사, 3년~5년 미만($M=2.91, SD=.16$)의 영아교사경력을 가진 교사가 5년~7년 미만($M=2.76, SD=.15$), 7년 이상($M=2.71, SD=.13$)의 영아경력교사보다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교사연령에서는 30세~39세 교사($M=2.94, SD=.15$)가 20세~29세의 교사($M=2.86, SD=.16$)보다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어린이집 유형에서는 가정어린이집 교사($M=2.96, SD=.13$)가 민간어린이집 교사($M=2.88, SD=.17$)보다 효능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영아-교사 상호작용에서는 영아교사경력($F=3.54, p<.01$), 어린이집유형($F=6.03, p<.05$), 교사학력($F=3.54,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났다. 이를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아교사의 경력이 1년 미만($M=3.83, SD=.34$), 1년~3년 미만($M=3.89, SD=.39$)인 영아경력 교사가 7년 이상($M=3.45, SD=.16$)의 영아경력을 가진 교사보다 상호작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M=3.91, SD=.37$)가 민간어린이집 교사($M=3.71, SD=.29$)보다 상호작용이 높게 나타났다. 교사의 학력은 보육교사교육원 출신의 교사($M=2.88, SD=.17$)가 대학원을 졸업한 교사($M=3.45, SD=.39$)보다 영아-교사와의 상호작용이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서는 교사의 경력($F=5.94, p<.001$), 영아교사의 경력($F=6.91,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년~3년 미만의 교사($M=4.33, SD=.57$)와 3년~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교사($M=3.83, SD=.68$)가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M=3.06, SD=.99$)보다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이 높게 나타났다. 영아교사경력에서는 1년 미만의 교사($M=3.84, SD=.84$)와 1년~3년 미만의 교사($M=3.77, SD=.81$), 3년~5년 미만의 영아교사경력을 가진 교사($M=3.91, SD=.73$)가 7년 이상의 영아교사경력을 가진 교사($M=2.24, SD=.97$)보다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영아교사의 민감성, 효능감, 영아와의 상호작용과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간의 관계

영아교사의 민감성, 효능감, 영아-교사 상호작용과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영아교사의 민감성과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간의 관계를 <표 3>에서 살펴보면, 영아교사의 민감성과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의 상관은 .42($p<.01$)로 정적상관을 나타내어, 교사의 민감성이 높을수록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이 높음을 보여준다. 교사의 민감성 요인 중 긍정적 민감성 요인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과 높은 관계($r=.48, p<.01$)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서발달을 하위요인별로 보면, 영아교사의 감성지각 민감성이 높을수록 영아의 사회적 관계($r=.29, p<.01$), 자아개념($r=.17, p<.0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긍정적 민감성은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하위요인 모두와 상관이 있는 것($r=.39-.47, p<.01$)으로 나타났다.

<표 3> 영아교사의 민감성, 효능감, 영아와의 상호작용과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간의관계 (N=169)

		영아 사회·정서발달				
		기본정서 및 사회적행동	자아개념	자기조절	사회적 관계	전체
교사 민감성	감성지각 민감성	.05	.17 [*]	-.03	.29 ^{**}	.13
	긍정적 민감성	.47 ^{**}	.44 ^{**}	.42 ^{**}	.39 ^{**}	.48 ^{**}
	부정적 민감성	.09	.11	-.02	.04	.07
	전체	.36 ^{**}	.43 ^{**}	.24 ^{**}	.47 ^{**}	.42 ^{**}
교사 효능감	일반적 교사효능감	.28 ^{**}	.11	.21 ^{**}	.24 ^{**}	.25 ^{**}
	개인적 교사효능감	.33 ^{**}	.22 ^{**}	.15 [*]	.16 [*]	.26 ^{**}
	전체	.41 ^{**}	.22 ^{**}	.25 ^{**}	.27 ^{**}	.34 ^{**}
영아 -교사 상호 작용	적극적인 활동참여	.17 [*]	.05	.29 ^{**}	-.06	.13
	긍정적인 상호작용	.49 ^{**}	.38 ^{**}	.39 ^{**}	.41 ^{**}	.48 ^{**}
	반응적인 교사	-.03	.27 ^{**}	.11	.18 ^{**}	.12
	전체	.27 ^{**}	.24 ^{**}	.36 ^{**}	.16 [*]	.28 ^{**}

* $p < .05$, ** $p < .01$

영아교사의 효능감과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교사의 효능감 전체 점수와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은 .34($p < .01$)로 정적상관을 나타내어 교사의 효능감이 높을수록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효능감 요인 중 개인적 교사효능감($r = .26, p < .01$) 요인과 일반적 교사효능감 요인($r = .25, p < .01$) 모두 영아의 사회·정서발달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보면, 영아교사의 일반적 교사효능감이 높을수록 영아의 기본정서 및 사회적 행동($r = .28, p < .01$), 사회적 관계($r = .24, p < .01$), 자기조절($r = .21, p < .0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적 교사 효능감은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하위요인 모두와 상관이 있는 것($r = .15 \sim .33, p < .05, .01$)으로 나타났다.

영아교사의 영아-교사 상호작용과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교사의 상호작용과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은 .28($p < .01$)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이 높아짐을 보여준다. 교사의 상호작용 중 긍정적인 상호작용 요인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과 높은 관계($r = .48, p < .01$)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보면, 교사의 상호작용 중 적극적인 활동참여는 영아의 자기조절($r = .29, p < .01$), 기본정서 및 사회적 행동($r = .17, p < .05$)과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반응적인 교사일수록 영아의 자아개념($r = .27, p < .01$)과 사회적 관계($r = .18, p < .01$)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사의 상호작용 하위요인 중 긍정적인 상호작용 요인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모든 하위요인과 관련이 있어($r = .38 \sim .49, p < .01$),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3. 영아교사의 민감성, 효능감, 영아와의 상호작용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영아교사의 민감성, 효능감, 영아-교사 상호작용의 교사변인이 동시에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대신, 영아교사의 민감성, 효능감, 영아-교사 상호작용의 교사변인을 단계별로 투입하여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순차적으로 유의미한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교사의 민감성 3개 하위요인과 교사의 효능감 2개 하위요인, 그리고 교사의 상호작용 3개 하위요인이 함께 투입되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53%의 설명력($F=22.80, p<.001$)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긍정적인 민감성($\beta=.52, p<.001$)이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긍정적인 상호작용($\beta=.39, p<.001$), 감성지각 민감성($\beta=.38, p<.001$), 부정적 민감성($\beta=-.24, p<.01$), 반응적인 교사($\beta=.15, p<.05$) 순서로 영향을 미쳤다. 상호작용 중 적극적인 참여활동과 교사의 효능감 2개 하위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TOL값은 .53~.90, VIF값은 1.11~1.87, Durbin-Watson값은 1.69로 나타나 적합한 회귀모델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였다.

<표 4> 영아교사의 민감성, 효능감, 영아와의 상호작용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예측변인		B	β	t	R^2 변화량	R^2	F	공선성통계량	
								공차	VIF
[민감성]	긍정적 민감성	24.27	.52	7.14***	.24			.62	1.62
[민감성]	감성지각 민감성	17.67	.38	5.57***	.13			.63	1.59
[상호작용]	긍정적인 상호작용	16.67	.39	5.23***	.10			.54	1.84
[민감성]	부정적 민감성	-14.73	-.24	-3.46**	.04	.53	22.80***	.53	1.87
[상호작용]	반응적인 교사	7.00	.15	2.38*	.01			.76	1.32
[상호작용]	적극적인 참여활동	4.72	.13	1.95				.69	1.45
[효능감]	일반적 교사효능감	12.24	.11	1.92				.90	1.11
[효능감]	개인적 교사효능감	.53	.01	.10				.76	1.32

* $p<.05$, ** $p<.01$, *** $p<.001$

한편, 영아교사의 민감성, 효능감, 영아-교사 상호작용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의 하위요인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먼저, 사회·정서발달의 하위요인 중 기본정서 및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민감성 중 긍정적 민감성($\beta=.47, p<.001$)과 감성지각 민감성($\beta=.35, p<.001$), 부정적 민감성($\beta=-.20, p<.01$) 모두 영향을 미쳤으며, 상호작용 중 긍정적인 상호작용($\beta=.31, p<.001$), 효능감 중 일반적 교사효능감($\beta=.14, p<.05$)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45%의 설명력을 보였다($F=17.68, p<.001$). TOL값은 .54~.90, VIF값은 1.11~1.84, Durbin-Watson값은 1.57로 나타나 적합한 회귀모델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였다.

<표 5> 영아교사의 민감성, 효능감, 상호작용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예측변인	B	β	t	R^2 변화량	R^2	F	공선성통계량	
								공차	VIF
기본 정서 · 사회 적 행 동	[민] 긍정적 민감성	.98	.47	5.98***	.24	.45	17.68***	.54	1.84
	[민] 감성지각 민감성	.73	.35	4.79***	.09			.62	1.62
	[상] 긍정적인 상호작용	.61	.31	3.95***	.08			.69	1.45
	[민] 부정적 민감성	-.55	-.20	-2.69**	.02			.63	1.59
	[효] 일반적 교사효능감	.73	.14	2.38*	.02			.90	1.11
자 아 개 념	[상] 긍정적인 상호작용	.66	.42	5.85***	.19	.46	16.94***	.76	1.32
	[민] 긍정적 민감성	.63	.37	5.52***	.11			.85	1.18
	[상] 반응적인 교사	.55	.31	4.80***	.10			.79	1.28
	[민] 감성지각 민감성	.43	.26	4.62***	.05			.73	1.37
자 기 조 절	[민] 긍정적 민감성	1.00	.51	6.29***	.18	.43	17.53***	.62	1.62
	[민] 부정적 민감성	-.87	-.33	-4.36***	.09			.54	1.84
	[상] 적극적인 참여활동	.51	.32	4.44***	.04			.63	1.59
	[상] 적극적인 반응	.44	.22	3.17**	.05			.90	1.11
	[민] 감성지각 민감성	.43	.22	2.87**	.03			.53	1.87
	[상] 긍정적인 상호작용	.37	.20	2.69**	.03			.69	1.45
	[효] 일반적 교사효능감	.61	.13	2.03*	.01			.76	1.32
사 회 적 관 계	[민] 감성지각 민감성	1.14	.55	9.30***	.22	.51	43.19***	.62	1.63
	[민] 긍정적 민감성	.84	.47	6.86***	.17			.54	1.84
	[민] 긍정적인 상호작용	.98	.42	6.44***	.09			.63	1.59
	[민] 부정적 민감성	-.65	-.23	-3.40**	.03			.53	1.87

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만을 제시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중 자아개념에 대해서는 상호작용 중 긍정적인 상호작용($\beta=.42$, $p < .001$), 반응적인 교사($\beta=.31$, $p < .001$) 요인이 영향을 미쳤고, 민감성 중 긍정적 민감성($\beta=.37$, $p < .001$)과 감성지각 민감성($\beta=.26$, $p < .001$) 요인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46%의 설명력($F=16.94$, $p < .001$)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OL값은 .73~.79, VIF값은 1.18~1.37, Durbin-Watson값은 1.61로 나타나 적합한 회귀모델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였다.

사회·정서발달의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에 대해서는 43%의 설명력($F=17.53, p<.001$)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성 중 긍정적 민감성($\beta=.51, p<.001$), 부정적 민감성($\beta=-.33, p<.001$), 감성 지각 민감성($\beta=.22, p<.01$) 요인 모두 영향을 미쳤으며, 상호작용 중 적극적인 참여활동($\beta=.32, p<.001$), 적극적인 반응($\beta=.22, p<.01$), 긍정적인 상호작용($\beta=.20, p<.01$) 요인과 효능감 중 일반적인 효능감($\beta=.13, p<.05$)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TOL값은 .53~.90, VIF값은 1.11~1.87, Durbin-Watson값은 1.56로 나타나 적합한 회귀모델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였다.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는 51%의 설명력($F=43.19, p<.001$)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성 중 감성지각 민감성($\beta=.55, p<.001$), 긍정적 민감성($\beta=.47, p<.001$), 부정적 민감성($\beta=-.23, p<.01$) 모두 영향을 미쳤으며, 상호작용 중 긍정적 상호작용($\beta=.42, p<.001$)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TOL값은 .53~.63, VIF값은 1.59~1.87, Durbin-Watson값은 1.82로 나타나 적합한 회귀모델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아와 영아교사를 대상으로 영아교사의 민감성, 효능감, 영아-교사 상호작용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배경변인인 교사경력, 영아교사경력, 교사연령, 어린이집유형, 교사학력에 따른 민감성, 효능감, 영아-교사 상호작용 및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교사의 민감성에서는 교사경력, 영아교사경력, 어린이집유형에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교사의 경력에서는 1년~3년 미만의 경력교사가 1년 미만의 경력교사와 3년~7년 이상의 경력교사보다 민감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사의 영아교사경력에서는 3년~5년 미만의 영아교사경력을 가진 교사가 7년 이상의 영아교사경력을 가진 교사보다 민감성이 높게 나타났다. 교사의 경력과 영아교사경력에서는 경력이 적은 교사가 경력이 많은 교사보다 민감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총 근무경력이 적을수록 유아의 감정, 관심사,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하며 긍정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한다는 오정윤(2011)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한편, 교사의 1년 미만의 교사경력에서 민감성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초임교사가 영아에게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민감하고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 등의 미숙함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곽현주, 2004; 김정희, 2015). 반면에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적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보다 민감성이 낮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교사들이 직무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영유아들과의 민감한 상호작용 수준이 낮아진다는 왕미나(2015)의 연구 결과를 추론해 볼 때, 경력이 많아짐에 따라 양육과 돌봄이 반복되면서 교사의 부족한 휴식과 과중한 업무 등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영유아에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부분이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교사의 부정적이고 우울한 심리 상태가 교사민감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Gerber, Whitebook과 Weinstein(2006)의 연구도 이러

한 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므로 교사의 민감성 증진을 위해 영아에 대한 관련 지식과 기술발달을 위한 지원도 중요하지만(김미영, 정옥분, 2014), 교사가 영아의 민감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장기간 동안 근무하는 교사의 교육환경, 직무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어린이집 유형에서는 가정어린이집 교사가 민간어린이집 교사보다 민감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어린이집이 소규모이고 영아들이 교사로부터 개별적인 관심을 받을 기회가 많으므로(이창은, 2014), 교사와 영아가 더 밀착되어 있는 시간이 길며, 영아에 대해 즉각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더 많이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교사의 효능감에서는 교사경력, 영아교사경력, 교사연령, 어린이집유형에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1년 미만 경력의 교사부터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교사가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보다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영아교사경력에서도 1년~3년 미만의 영아교사경력을 가진 교사가 3년~7년 이상의 영아교사경력을 가진 교사보다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즉, 교사의 경력과 영아교사의 경력이 적은 교사가 경력이 많은 교사보다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영아교사의 효능감을 연구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교사의 경력이 많을수록 높은 교사 효능감을 보이는 결과(박유미, 2008; 이정돈, 2010)를 나타낸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지만, 교사의 경력이 많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Gibson과 Brown(1985), 김신덕(1999)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한다. 이는 교직 경험이 반드시 교사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아니며, 교사의 태도와 노력에 따라 교사효능감이 달라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력이 적은 교사가 경력이 많은 교사에 비해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은 것으로 시사된다. 그러므로 교사 스스로 경력이 높아질수록 자신을 계발하는데 힘써야 하며 보육에 대한 높은 신념을 가져야 하겠다. 교사연령에서는 30세~39세의 교사가 20세~29세의 교사보다 높은 효능감을 보였는데, 이는 교사의 연령이 많을수록 효능감이 높다는 연구결과(김순애, 2014; 조기선, 2013; 천현정, 2010)와 같다. 이는 교사의 연령이 20대보다는 30대 이상의 교사가 출산과 육아의 경험이 많아(이정애, 2013) 영아에 대한 경험지식이 많기 때문인 것 같다. 어린이집 유형에서는 가정어린이집 교사가 민간어린이집 교사보다 효능감이 더 높았는데, 어린이집 특성상 가정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보다 영아의 보육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아전담 보육만 하고 있으므로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교사의 영아-교사 상호작용에서는 영아교사경력, 어린이집유형, 교사학력에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1년~3년 미만의 영아교사경력을 가진 교사가 7년 이상의 영아교사경력을 가진 교사보다 영아-교사 상호작용이 높게 나타났다. 교사의 근무경력이 길수록 교사-영아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이 높다고 연구한 천현정(2010)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지만, 4년 미만의 교사 경력을 가진 교사가 4년~7년 이상 경력을 가진 교사보다 상호작용이 높게 나타난 안문실(2013)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이는 교사가 초임교사 때부터 3년 동안 경력을 쌓으면서 영아에 대한 경험과 상호작용을 통해 영아에 대한 정보와 전문적 지식이 높아지지만 경력이 많아짐에 따라 교사가 영아를 보육할 때 상호작용을 처음보다는 많이 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어린이집 유형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교사가 민간어린이집 교사보다 상호작용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보다 실제적인 워크숍, 세미나, 사례발표 등에 교사들을 주기적으로 참여시키기 때문에(신희이, 2011) 교사들의 상호작용이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 교육원을 졸업한 교사의 상호작용이 대학원을 졸업한 교사의 상호작용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력이 높은 교사일수록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한 이기숙, 박경자와 김영옥(2007)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지만, 교육원 출신 교사 집단이 2-3년제나 4년제 이상 교사 집단에 비해 교사 상호작용수가 높게 나타난 홍은숙(2013)과 안문실(2013)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 교육원을 졸업한 대부분의 교사들이 가정에서 아이를 키워본 양육경험이 있는 기혼자가 많으며(천현정, 2010), 대학원을 졸업한 교사보다는 영아에 대한 경험이 많아 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 추측된다. 이에 교사-영아의 질 높은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학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험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은 교사경력, 영아교사경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은 1년~5년 미만의 교사경력을 가진 교사가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보다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사의 영아교사경력에서는 초임교사부터 7년 미만의 교사가 7년 이상의 경력 교사보다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초임교사 시기를 지나 1년~3년 정도의 시기는 교사가 자신감을 가지고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과 교육적 지식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이며, 3년~5년의 시기는 교사가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시기(Katz, 1972)이므로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반면에 7년 이상의 경력과 영아교사경력에서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이 낮게 나타났다.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의 수가 적은 것은 감안하여, 이 결과를 교사의 경력이 오래됨에 따라 영아의 사회·정서에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 다만, 교사의 경력이 오래될수록 교사의 소진 정도가 높아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김인숙(2010)은 교사의 경력에 따라 영아와의 사회·정서 질적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교사의 부단한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결과적으로, 민감성, 효능감, 영아-교사 상호작용과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은 교사의 영아교사 경력에서 가장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사는 스스로 자신의 일에 대한 경력을 쌓으면서 영아에 대해 경험하고 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바람직한 수준의 교수방법을 습득해야 할 것이며,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교사의 영향력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 자신의 경험과 개인적인 환경을 기반으로 영아를 보육하는데 있어 필요한 민감성, 효능감, 영아-교사 상호작용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경력교사들에게는 영아교사로서의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는 적절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편안하고 안정된 근무환경개선 및 교사의 복지를 지원하여 교사들이 교직생활을 근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의 민감성, 효능감, 영아-교사 상호작용 모두가 영아의 사회·정서발달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영아교사의 민감성, 효능감, 영아-교사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교사의 민감성에서는 하위요인인 긍정적 민감성이 높을수록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하위요인 모두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교사가 영아의 다양한 정서적, 신체적 표현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적절하게 반응을 잘하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교사의 민감성과 반응성이 정서적 적응 및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Peisner-Feinberg와 Burchinal(1997)의 연구와 교사의 민감성은 교사와 영유아간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아동의 최적의 발달을 도모한다는 신희이(2011)의 연구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영아와 교사의 긍정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민감성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아교사의 효능감에서는 영아교사의 효능감 하위요인인 일반적 교사효능감과 개인적 교사효능감 모두가 영아의 사회·정서발달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신혜영과 이은혜(2005)는 교사 자신이 교사 역할 수행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이 강할수록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행동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였는데, 이들의 연구에서처럼 영아교사가 영아를 보육하는데 있어서 교수능력에 대한 신념을 강하게 가질수록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즉, 영아교사 자신이 현재 갖추고 있는 교육을 위한 기본 자질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교수·학습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신이 효과적으로 교육을 한다고 지각하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영아-교사의 상호작용에서는 하위요인인 긍정적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유아일수록 안정된 사회성을 보이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형성한다는 Howes, Phillips와 Whiteook(1992)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아의 사회성 발달 점수가 높게 나타난 민혜영(1999)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즉, 영아교사는 영아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여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모델이 되어야 하겠다.

셋째, 영아교사의 민감성, 효능감, 영아-교사 상호작용의 세 변인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한 결과, 민감성 하위요인 모두가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긍정적 민감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교사의 민감성이 중요 변인임을 지지해주는 결과로, 교사의 민감성은 여러 종속변인에 대해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며 교사의 민감성이 영아보육에 있어서 주요 변인임을 주장한 김숙령(2010)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즉, 민감한 영아교사는 영아가 교사에게 보내는 눈짓, 미소, 여러 욕구 등의 신호를 인식하고 정확히 해석하여 영아의 다양한 신호에 대해 적절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며, 특히 영아들의 개인차를 존중하고 고려하며 영아의 흥미와 관심, 요구 등을 수용하여 활동을 계획해야 한다. 상호작용 중에서는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반응적인 상호작용이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교사의 민감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영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홍은숙(2013)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며, 영아의 긍정적인 사회·정서발달을 위해서는 교사의 긍정적이고 애정적인 신체적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강조한 안문실(2013)의 연구결과와도 같다. 반면에, 교사효능감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본 연구의 결과는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은 교사의 효능감에 의해 제일 큰 영향을 받는다는 최연희(2014)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교사의 효능감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민감성과 상호작용은 영아라는 대상에 대한 행동적인 반응인 반면 교사효능감은 교사 자신에 대한 신념과 자부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본다. 즉, 교사의 효능감은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영아에 대한 반응이나 행동에 비해 영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은 교사의 인식적인 측면인 효능감보다는 영아의 행동, 언어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현해주고 반응하며 상호작용하는 교사의 즉각적인 반응이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을 하위요인별로 살펴보았을 때,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에서 차이가 있었다. 사회·정서발달 하위요인 중 하나인 기본정서 및 사회적 행동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사의 민감성을 촉진하도록 지원해줘야 하고, 영아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며, 교사 스스로 자신의 역할과 태도에 대한 지속적인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자아개념 하위요인에서는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긍정적인 민감성, 감성지각 민감성, 반응적인 교사가 영아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쳤다. 자기조절 하위요인에서는 영아교사의 민감성, 효능감, 상호작용 대부분이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민감성의 영향력이 높았다. 이는 영아교사가 영아에게 민감하고 적절하게 상호작용하고 자기효능감을 높여 영아가 자기조절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조력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적 관계 하위요인에서는 영아교사의 민감성 모두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영향을 미침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영아-교사가 어떠한 태도와 상호작용을 보이는가에 따라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이 달라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교사변인을 알아봄으로써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향상을 위한 교수법과 더불어 교사 스스로 인식하고 점검하는 근본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교사의 민감성, 효능감, 영아-교사 상호작용 세 변인 모두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쳤지만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의 요인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소 차이가 있었다. 특히, 가장 강력한 변인은 영아교사의 긍정적인 민감성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이었다. 이들 변인은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는데, 교사의 배경변인 중 영아교사경력에 따라 가장 큰 차이가 있었다. 이는 영아에 대한 민감한 반응, 교사의 지각, 영아교사의 친밀한 상호작용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을 증진시키는 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때 교사의 경력 특히 영아를 보육했던 경력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교사의 심리적인 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는 것이므로 교사의 배경변인을 함께 분석하지 않았으며, 대상 수가 많지 않아 이를 통제하고 분석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교사경력, 영아교사경력 등의 배경변인을 통제하고 이들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민감성, 효능감, 영아-교사 상호작용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을 향상시키는 주요 변인들을 살펴봄과 동시에 교사의 교육 전략을 계획할 수 있으며 질 높은 보육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영아교사는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하며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영아와 교사 간의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고 영아의 반응요구에 대해 교사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침서(보건복지부, 2011)에 의하면, 교사의 적절한 행동과 태도는 영아에게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길러주며, 교사의 신념에 따라 교사의 판단, 계획, 영아와의 상호작용에 반응하는 유형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영아교사는 영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높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영아의 반응을 민감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이에 대해 적절하게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영아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민감성 수준을 높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려고 교사 스스로가 노력해야 하며, 영아의 안정적인 정서와 사회적 관계의 형성을 도와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보육 현장에서 영아교사가 영아를 이해하고 지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 하였다. 논의를 중심으로 얻어진 내용을 토대로 보육현장의 발전을 위한 기대효과와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제한된 지역에서 하였으므로 근무유형 및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균등하게 표집 되지 않아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더 많은 수의 영아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영아교사가 영아를 관찰한 후 사회·정서발달을 판단하여 응답하는 것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방법은 객관적인 결과를 얻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교사의 응답이 아니라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을 직접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긍정적 변인을 초점으로 맞추어 살펴보았으나, 이후에는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을 저하시키는 교사의 부정적 행동 변인도 고려하여 그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강숙현 (1994).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척도 이해와 활용: 유아교사를 위한 핸드북**. 서울: 동문사.
- 강이슬, 김민경 (2011). 영아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4), 325-352.
- 고윤희 (2014). 영아의 기질과 교사 민감성이 영아의 사회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곽현주 (2004). 수업반성과정과 유치원 교사의 교수행동.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명선 (2014). 교사의 직무만족도와 효능감이 유아의 정서, 인성,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광주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영, 정옥분 (2014). 영아전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교사민감성에 관한 연구: 환경변인 및 개인변인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1(2), 75-96.
- 김민희 (2010). 영아의 사회 정서적 적응과 성, 연령, 기질 및 어머니 양육행동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선화 (2011). 만2세 영아의 개인적특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놀이성 및 사회정서발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숙령 (2010). 영아-교사 간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과 교사의 민감성이 영아의 부모와 교사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61, 197-215.
- 김순애 (2014). 영아반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교사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위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신덕 (1999). 유아교사의 효능감과 역할수행능력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아영, 차정은 (2003). 교사효능감 및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층분석. **교육심리연구**, 17(2), 25-43.
- 김유미 (2010). 어머니의 행복감과 영아의 사회·정서 능력 간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순 (2011). 영아-교사 상호작용 교사교육이 교사효능감과 영아-교사 상호작용 및 영아의 사회·정서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의향, 김명순 (2006). 7-24개월 영아의 의사소통 몸짓과 어휘습득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7(6), 217-234.
- 김인숙 (2010). 보육교사가 지각한 영아의 애착안정성과 사회·정서적 행동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이 (2013). 교사-영아간 애착안정성과 영아교사 민감성 인식의 관계: 경기도 보육기관 영아교사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희 (2015). 초임유아교사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1), 191-208.
- 김현정 (2014). 영아의 의도적 통제와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영아의 사회·정서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지 (2008). 영아-교사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보육교사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효과.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호인 (2010). 2세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평정척도 개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라양균 (2006). 영아의 사회·정서능력과 기질 및 애착 간의 관계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류윤석 (2008). 유치원 교사의 교사 효능감 수준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52, 43-62.
- 문태형 (2014). 유치원 교사의 교사효능감 및 임파워먼트와 조직효과간의 관계 연구. **아동교육**, 23(3), 299-313.
- 민광미 (2014). 영아반 교사용 민감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민혜영 (1999).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형과 기질에 따른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미래 유아교육학회지**, 6(1), 63-88.
- 박선화 (2013). 교사-영아 상호작용이 사회 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연, 서소정, Bornstein (2005). 어머니-영아간의 상호작용방식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5), 15-30.
- 박유미 (2008). 영아기 발달특성에 대한 보육교사의 지식과 교사의 상호작용 행동.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유미, 최인숙, 김은아 (2010). 또래간의 신체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과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62, 33-54.
- 배진희 (2013). 보육교사의 보육신념과 영아의 사회·정서행동간의 관계: 교사민감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백경순 (2011).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현상에 관한 질적연구. **어린이문학교육**

연구, 12(2), 261-275.

- 보건복지부 (2011).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침서: 39인 이하 보육시설**. 서울: 보건복지부.
- 신혜영, 이은혜 (2005).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효능감이 교사 행동의 질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5), 105-121.
- 신희이 (2011). 영아교사의 전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영아교사의 민감성, 교직헌신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문실 (2013). 영아의 사회-정서적 긍정행동과 교사의 상호작용 행동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옥승, 이정란 (2003). 유아의 자기조절력 관련변인간의 관계분석. **교육방법연구**, 15(2), 145-161.
- 연보라 (2014). 보육교사의 정서지능과 영아발달지식이 교사-영아 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정윤 (2011). 보육교사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3), 25-47.
- 왕미나 (2015).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 자기성찰지능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왕유정 (2013). 영아를 위한 음악활동이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돈 (2010). 영아보육교사의 영아발달지식과 보육효능감이 전문성 발달수준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하, 서소정 (2012). 영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영아발달 간의 관계 연구: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3), 53-77.
- 이기숙, 박경자, 김영옥 (2007). 보육교사의 질적 특성과 유아의 인지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육아정책연구**, 1(1), 143-168.
- 이분려 (1998). 유치원 조직풍토와 직무만족 및 효능감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선희 (2010). 만 1세반 자유놀이시간에서의 영아-교사의 상호작용과 교사의 민감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윤정 (2013). 교사·영아의 상호작용을 통한 영아의 정서지능과 사회정서행동에 관한 구조모형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숙 (2003). 교사경력과 유아연령에 따른 교사-유아의 상호작용.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애 (2013). 영아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과 영아 발달지식이 교사-영아 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창은 (2014).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하나 (2012). 영아의 또래 상호작용과 관련 변인 연구: 영아의 발달수준, 기질, 어머니와의 애착 안정성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현숙 (2008). 영아의 개인특성과 기관의 환경 변인이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미치는 영향.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화용 (2012). 영아의 놀이성과 기질 및 사회정서발달의 관계.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사남 (2012). 어머니의 분리불안 및 영아에 대한 애착과 영아의 사회정서발달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종윤 (2010).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영아의 기질과 교사효능감이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점옥 (2009).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기선 (2013). 영아반 보육교사의 영아발달지식과 직무스트레스가 보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해연 (2014). 어린이집 2세 학급의 물리적 환경, 보육과정, 교사 상호작용의 질이 영아의 놀이 행동과 사회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주정혜 (2012). 아버지 양육참여와 만 2세 영아의 사회정서발달과의 관계.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지성애 (2007). 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영유아 발달과 시설의 질에 대한 부모의 관점비교. **열린유아교육연구**, 12(5), 23-43.
- 차승환 (2012). 교사-영아 간의 애착안정성과 영아의 사회·정서행동과의 관계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채승희 (2013).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을 위한 그림책 활용 감각활동 개발 및 적용.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천현정 (2010).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이 교사-영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연희 (2014).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변인에 관한 연구: 민감성, 효능감,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하지영, 서소정 (2011). 영아와 교사의 상호작용에 관한 단기종단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6(2), 109-140.
- 홍은숙 (2013). 영아-교사 간 상호작용에서 교사의 민감성과 민감성 인식 및 영아의 적응행동.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정아 (2010). 영아의 성별, 월령 및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효능감과 영아발달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bbott-Shim, M., & Sibley, A. (1987). *Assessment profile early childhood programs*. Atlanta, GA: Quality Assist.
- Bayley, N. (2006). *Bayley scales of infant and toddler development* (3rd ed.). San Antonio, TX: Pearson Education.
- Downer, J., Sabol, T. J., & Hamre, B. (2010). Teacher-child interactions in the classroom: Toward a theory of within-and cross-domain links to children's developmental outcome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1(5), 699-723.
- Enochs, L., & Riggs, I. (1990). Toward the development of an elementary teacher's 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 *Science Education*, 74(6), 625-637.
- Gerber, E. B. (2003). *Predictors of teacher sensitive caregiving in centerbased child care*.

-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Gerber, E. B., Whitebook, M., & Weinstein, R. S. (2006). At the heart of child care: Predictors of teacher sensitivity in center-based child car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2*(3), 327-346.
- Gibson, S., & Brown, M. H. (1985). Teachers' sense of efficacy: An important factor in school improvement.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86*(2), 173-184.
- Holloway, S. D., & Reichhart-Erickson, M. (1998). The relationship of day care quality to children's free play behavior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3*(1), 39-53.
- Howes, C. (1997). Teacher sensitivity, children's attachment and play with peer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8*(1), 41-49.
- Howes, C., Matheson, C., & Hamilton, C. (1994). Maternal, teacher, and child care history correlates of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peers. *Child Development, 65*(1), 264-273.
- Howes, C., Phillips, D. A., & Whitebook, M. (1992). Thresholds of quality: Implications for the social development of children in center-based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63*(2), 449-460.
- Hoy, W. K., & Miskel, C. G. (2005). *Educational Administration*. NY: The McGraw-Hill.
- Katz, L. G. (1972). Developmental stages of preschool teacher.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73*(1), 50-54.
- Peisner-Feinberg, E. S., & Burchinal, M. R. (1997). Relations between preschool children's child-care experience and concurrent development: The cost, quality and outcomes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43*(3), 451-477.
- Phillips, D., McCartney, K., & Scarr, S. (1987). Child care quality and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3*(4), 537-543.
- Teti, D., & Gelfand, D.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s: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5), 918-929.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infant teacher's sensitivity, efficacy and interaction on the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infant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69 infants and their teachers in daycare center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do. The instruments were collected through teachers' responses. Data were analyzed through the variance analysis using PASW 18.0 to verify the infant teachers' susceptibility, efficacy, and infant-teacher interaction based on infant teachers' background variables;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and to find out the relative influence of variables on the infant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Among the background variables of the teachers, their career as infant teachers displayed differences in the infant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and the susceptibility, efficacy, and infant-teacher interactions displayed partial differences based on the teaching career, career as infant teachers, age, daycare center type, and the academic background of the teachers. Secondly, there were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infant teacher's sensitivity, efficacy and interaction and infant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Thirdly, infant teachers' sensitivity, efficacy and infant-teacher interaction had an influence on infant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Especially, sensitivity and interaction were powerful and influential variables and their explained variance was 53%.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teachers' efforts must be made to interact positively with infants and to increase their sensitivity level to respond to infants in order to increase infant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 *Key Words* : sensitivity, efficacy, interaction, social-emotional development

논문투고 2014. 10. 15.
수정원고접수 2015. 05. 25.
최종게재결정 2015. 06. 09.